

본당 모임 및 교육

본당 사목 단체 월례회	레지오 마리아 주회	본당 제단체 모임	구역 연락처(13구역)
사목회의 (마지막, 일) 3시 미사후	순교자들의모후 (화) 4:15 PM	성령기도회 (목) 미사후	총구역장 214-597-5553
재정회의 (셋째 화) 미사후	사랑의 샘 (화) 6:00 PM	울뜨레아 (둘째 일)	알렌, 맥키니 972-206-7009
전례회의 (마지막, 화) 미사후	천사들의 모후 (일) 11:30 AM	구리아 (셋째 일) 1:00 PM	캐롤튼 213-344-9129
구역장회의 (첫째 토) 3 PM	신자들의 모후 (화) 5:30 PM	썰기도 (2,3주일) 10시미사후	코펠 817-946-9168
성찬봉사회 (둘째 목) 미사후	평화의 모후 (토) 3:30 PM	청년회 (토) 6 PM	N. 코펠 972-743-9323
성모회 (첫째 화) 미사후	자비의 모후 (토) 3:00 PM	교사회 (일) 9:15 AM	던컨빌 469-328-3831
학부모회 (셋째 일) 1 PM	황금공전 (일) 11:30 AM	쿨롬버스기사회 (넷째 일) 1:30 PM	갈랜드 972-795-9706
대건회, 7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사도들의 모후 (일) 11:30 AM	청소년 복사단 (첫째 일) 1:30 PM	얼빙 817-919-3050
하상회, 6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구세주의 모후 (일) 11:30 AM	복사단 자모회 (첫째 일) 1:30 PM	E. 프리스코 972-400-2882
이나시오회, 5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하늘의 모후 (일) 11:30 AM	연령회 (둘째 목) 미사후	E. 프리스코 214-436-3648
사도회, 4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로사리오의 모후 (일) 11:30 AM	도서실운영회 (둘째 일) 2 PM	W. 프리스코 469-831-6531
토마소회, 30대 (셋째 토) 4 PM		이나시오CLC (월, 수, 목) 8 PM	E. 플레노 214-316-0701
주일학교 & 청소년 (일) 10:00 AM - 11:15 AM		거룩한 독서 (화) 10 AM, Zoom	W. 플레노 818-590-3442
한국학교 (토) 9:30 AM - 12:30 PM		성경 100주간 (수) 8 PM, Zoom	리차드슨 214-770-4047
		성경 100주간 재속복자회 (금) 8 PM Zoom	밸리랜치 214-470-8747
		재속복자회 (셋째 일) 4 PM	

교우 업체 소개

<p>정광장 통합 달라스 직매점 케를튼 (214) 483-3838 24hr (469) 774-9669</p>	<p>NOVA DENTAL Las Colinas Tel (214) 461-0425 1111 Kinwest Pkwy #150 Irving, TX 75063 김하운 소피아 DDS</p>	<p>Primary One 건강과 아름다움, 레이저, 건강검진 가정전문의, 입원전문의 BO Na Lee, MD (214) 656-5388 (문자 가능함) 6957 W Plano Pkwy #2300, Plano</p>	<p>벨라 헤어살롱 스킨케어 헤어 (수지원장) 972.800.1063 스킨 & 헤어 (아그네스) 510.449.6933 11434 Emerald St. #107 Dallas</p>
<p>안나케어/온에복지센터 972-506-0177, 토(Sat 운영) (노인복지 전문기관, 자원봉사가능) KAS/비영리 한인가족지원센터 www.annacaretx.com</p>	<p>ReadingTown 뉴욕본사의 40년 교육 노하우 학생수준별 Reading & Writing 프로그램 리딩타운 프리스코점 945.276.0392 www.readingtowntown.com 8018 Preston Rd. Ste 505, Frisco</p>	<p>남마리아 부동산 사업체/주택/상가리스 남현주 마리아 (972) 357-5535 Realtor.marynam@gmail.com</p>	<p>E & K Electric *전기의 모든 것* 한정관 요셉 Tel 972-955-6156</p>
<p>Ana Auto We sell, We fix, We make it work 중고차 판매부터 정비 & 바디까지 정직한 서비스로 모든것을 한번에 (469) 777-6227</p>	<p>SURA KOREAN BISTRO 귀환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상학 스테파노 (972) 243-5656 2240 Royal Ln. #106 Dallas, TX</p>	<p>BMW of Dallas Center of Excellence Kate Kim 김정인 카타리나 새차는 BMW 중고차는 Any Brand Mobile (480) 465-3853 bmwofdallas.com</p>	<p>조앤박부동산 주택전문, 새집전문 박성아 소파데레사 (214) 770-6496 Realtorjoanne73@gmail.com</p>
<p>살롱 드 아르떼 미용실 (시온마켓 2층) 972-704-5639 앤디(베드로), 유리(카타리나) 현하(엘리사벳)</p>	<p>MDMartin 스태핑, 인력 관리 MARK LEE 시설 유지 관리 Tel 214-991-5026 mark@mdmartinstaffing.com www.mdmartinstaffing.com</p>	<p>Shine Learning Center JUNE KIM 미술 영어 수학 테스트 준비 스펠 Carrollton Campus 972-245-7914</p>	<p>Bright Minds Preschool 2 to 5 Years Old 임은희 요안나 상담: (882) 417-4455 유치원: 월-금, 생일파티: 토/일</p>
<p>북나라 Book Nara 케를튼 H마트 볼 7 days open (972) 245-2665 *이전 장소* "동천홍과 맛객 사이 복도 끝"</p>	<p>Greenhill Insurance Business Auto Home Medicare (972) 243-3598 11498 Luna Road Ste 101 Dallas, TX 75234</p>	<p>맑음 헤어살롱 Hair Salon Tel 972-693-6247 코마트 옆 일요일은 예약만 받습니다.</p>	<p>O K 에어콘 대표 이정기 설치 및 수리 (주택/상업용) 214-796-3377, 469-774-3377 zzokac@gmail.com</p>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2026년 2월 22일

사순 제 1 주일

제 260007호

오늘의 전례

[입당송]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1 독서] 창세기 2,7-9;3,1-7

[화답송] 시편 51(50),3-4.5-6,7,12-13.14와 17(◎ 3,7 참조)

-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 2 독서] 로마서 5,12-19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마태오 4,1-11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가	시작	봉헌	성체	파견
	115	216	179, 154	116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5:00 PM	한국어
	일요일	10:00 AM	한국어
		12:00 PM	영어
		3:00 PM	한국어
평일	화·목	7:30 PM	한국어
	수·금	10:00 AM	한국어

성사안내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2,5,8,11월 첫째 토요일
혼인성사	사무실에 6개월 전에 신청
성 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미사 후

성당정보

주임신부	조재형 가브리엘
부주임신부	윤충훈 세례자요한
수녀	장수산나, 김연희마리아 214-762-5794
사무실	972-620-9150
종신부제	이시훈 사도요한 214-668-2862
사목회장	서윤교 요셉
팩스	972-484-4628
주소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예비자교리

성경 공부반	일 11:00AM - 12:15 PM
사무실 업무시간	수 7:00 PM (남성반) 이요한 부제
	수 11:00 AM 장수산나 수녀
	수 11:00 AM 박비비안나
사무실 업무시간	일 9:00 AM - 5:30 PM
	월 휴무
	화·목 12:30 PM - 8:30 PM
	수·금 9:30 AM - 6:00 PM
	토 10:00 AM - 6:30 PM

강론



사순 제1 주일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고통을 줄여준 커다란 발명이 4가지 있습니다. 불과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폐렴, 상처 감염, 산욕열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 수술을 받는 일 자체가 생명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세균 앞에서 무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생제는 단순한 약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는 인간의 책임이 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1991년 유행성 출혈열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항생제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18세기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했고,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질병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줍니다. 하느님의 뜻은 고통을 참고 견디는 데만 있지 않고,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돌보는 사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취제가 없던 시대의 수술은 치료하기 전에 형벌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술보다 고통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마취제가 도입되면서 의학은 처음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치료는 고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마취제는 말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을 미화하지 않으신다. 고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덜어야 할 짐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저도 2012년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척추 마취를 통해 큰 고통 없이 수술을 마쳤고, 이렇게 잘 걸어 다닙니다. 1895년, 빌헬름 콘라트 뢰트겐은 X선을 통해 인간의 몸속을 처음으로 보게 했습니다. 이후 CT와 MRI는 보이지 않던 병을 드러내고, 조용히 진행되던 죽음을 살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는 신앙적으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걷는 걸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게 했고 백신

은 공동체를 보호하게 했으며 마취제는 고통을 줄이려는 연민을 가르쳤고 영상의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살피는 책임을 일깨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아주 분명한 한 줄로 요약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이 왔습니다. 아담의 죄는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는 하느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인간은 생명의 근원에서 자신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에는 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함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을 죽음의 역사 안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편안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할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고 전합니다. 그 유혹은 세 가지였습니다. 빵의 유혹, 권력의 유혹, 그리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는 배고픔 앞에서 하느님보다 물질을 먼저 선택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는 십자가 없는 영광, 책임 없는 권세의 유혹이었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는 하느님을 이용하거나, 하느님 말고 다른 것을 절하며 쉽게 목적을 이루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을 기적이나 힘으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종이 죽음을 넘어 생명을 여는 길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유혹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더 조용하고, 더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아.” 이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느님께서 이미 주신 존엄을 부정하는 열

등감의 유혹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보다, 남과 비교하는 기준이 더 커질 때, 우리는 이미 유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자주 들립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작은 거짓, 작은 편법, 작은 타협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죄는 늘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수가 한다고 해서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혹은 양심을 무디게 하고, 죄를 평범한 일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기도도, 고해성사도, 화해도, 결단도 미루게 만드는 게으름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를 단번에 넘어뜨리지는 않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회개를 미루는 동안 마음은 점점 굳어 갑니다. 이 유혹들은 우리를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조용히,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담은 유혹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내려 놓았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혹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붙드셨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매일 유혹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붙들 것인가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내려놓으면 죽음의 방향으로 가고, 말씀을 붙들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치유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경순(요안나), 기길자(루치아), 김선미(소피아), 김성희(글로리아), 김연우 제이든(요셉), 김외분(프란체스카), 김지연, 마하해(스텔라), 박애경(마리아), 서지연(로사), 손현식(미카엘), 손현윤(가브리엘), 안길승(가브리엘), 양영도(이냐시오), 엄찬길(찰스), 오군석(프란치스코), 윤지희(미카엘라), 이복순(카타리나), 이상원(스테파노), 이에린(세실리아), 임원옥(크리스티나), 전용환(요한), 정상욱(젬마), 정성문(요한), 차형례(테레사), 하정희(울리아), 한재민(야고보)

공 지 사 항

2026년 사목 목표

1.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지난 50년의 감사와 기쁨을 새깁니다.
2. 성령의 친교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3.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 친교실 확장파 사제관 신축을 준비합니다.
4.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영성·문화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5. 감사·친교·나눔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합니다.

* 사순시기 간단 교리 - 2
사순 시기는 2월 18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2일(성목요일 아침)까지입니다. 사순은 기도와 단식, 자선을 통해 주님의 파스카 신비를 준비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 꽃 장식과 음악 사순 시기에는 재대 꽃 장식이 없습니다. 약기 사용은 노래를 듣는 범위로 제한합니다.
- 전례 복장 사순 시기: 보라색 제외

- 2차 헌금 2/21(토), 2/22(일)은 흑인 및 인디언 선교를 위한 교구의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 라이스 볼 저금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성경필사 - 잠언 마감 : 4/5(일) 까지 사무실 제출
- 사순 특강 주제 :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일정 : 3/10(화), 3/12(목) 5pm 판공성사, 6:45pm 목주기도 7:30pm 미사, 9pm 성시간 및 안수 지도 :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평화의 모후 사도회 지도신부)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안내 (미사 후)

날짜	구역
2/26 (목)	E 프리스코, 리차드슨
3/6 (금)	W프리스코, W플레노
3/13 (금)	알렌/ 맥키니, E 플레노
3/20 (금)	N코펠, 캐롤튼
3/26 (목)	코펠, 던컨빌, 갈랜드
4/3 (금)	성금요일 (3pm) 사목회 및 전신자

- 봄학기 성경 공부반 개학 내용 : 야고보 서간 일시 : 3/4 (수), 10시 미사 후 (#C117) 강사 : 장명화 수산나 수녀 신청 : 사무실
- 라파엘 장애인 모임 첫 정기회합 안내 대상 : 9학년 - 만 39세 장애인과 가족 일시 : 3/1 (일) 10시 미사 후 11시 20분 장소 : C108 목적 : 친교 및 분과 활동내용 발표 및 토의
- 12시 미사 선창자(칸토르)/유스 챔버 오페스트라 모임 대상 : 8학년 이상 남녀 오디션 신청/문의: 유지연 972-672-0273
- 교우 여러분을 위한 성가 클래스 대상 : 주일 성가와 전례 음악, 음악기초를 배우고 싶은 신자 누구나 일정 : 금요일 10시 미사 후. 12회 (2/27 시작) 수업료 : 한달 4회 기준 \$60 (본당 50주년 준비기금) 접수 : 사무실

● 주일학교 락인(Lock-In) 행사 안내
일시 : 3/6 (금) 5 ~ 10 pm 신청 
장소 : 성당 카페테리아
대상 : K to 8th Grade
참가비 : \$10
신청기간 : ~ 2/28까지 (추가 신청 없음)
-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게임과 활동
- 저녁으로 K- street food 분식 제공 예정
- 봉사 해 주실 부모님들은 각 반의 룸 대표에게 문의해 주세요.

● 2026 유스 그룹 봄 피정 주제 : 성령님, 저를 이끄소서 일정 : 3/20일(금) - 3/22(일) 신청 
장소 : Camp Copass (Denton, TX)
등록 마감 : 3/8일 (일), 참가비: \$180
등록 : <https://tinyurl.com/26SPRINGYG>
문의 : 장시준 다니엘 sakdallasouthgroup@gmail.com

● 세계 청년 대회 서울 2027 순례자 모집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2027 순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순례는 고등학교 11학년 예정자(현 9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기도와 친교, 그리고 보편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신앙을 깊이할 수 있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문의: 이현주 글라라 MsClaireSAK@gmail.com

● 성소 후원회에서 성소 세미나 준비를 위한 기금 마련 점심봉사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1/31일까지 목주기도 집계	12,810 단
-----------------	----------

건축헌금		교무금					
권상훈 (50)		박유나, 최지현, 손영신, 장재호, 이예선, 정행상, 종숙 아빌라, 이재훈, 김상문, Anna Bayne, 천용완, 정기수, 이명옥, 한상현, 서로사, 조필호, 김세길, 원은석, 김홍룡, 권상훈, 김성두, 윤안젤라, Micha Kauzlarich, 조수명, 신은재, 이상엽, 백혜란, 주상우, 손다연, 윤철수(2), 유동호, 미경 Britt, 김은섭(2)					
건축 계정	\$109,710.75	건축	\$50.00	교무금	\$4,290.00	주일 헌금	\$6,100.00
일반 계정	\$315,282.17	2차 헌금	\$105.00	매일 미사 책	\$47.00	주일 총액	\$10,592.00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48 명	수 37 명	목 38 명	금 49 명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53 명	10시 430 명	12시 285 명	3시 64 명	주일 합계	832 명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